

#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4년 4월 14일 (둘째 주일)

성경본문 : 마태복음 5장 17-20절

설교제목 : “예수와 율법”

산상수훈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의 설교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여덟 가지의 팔복으로 풀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팔복에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소금과 빛에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소금과 그 것처럼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존재와 맛을 가진 존재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빛된 존재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빛이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되고,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문맥과 연결되어 착한 행실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위가 선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에는 분명하게 구약의 율법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율법이 선함의 기준이 됩니까? 따라서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약과 예수님과 관계를 분명하게 정립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구약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합니다.(17절) ‘완전하게 한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플레로사이’입니다. 플레로사이는 성취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성취하다가 무엇입니까? ‘성취하다’, 플레오사이와 같은 히브리어가 ‘말레’입니다. ‘말레’는 ‘충만하다’, ‘가득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목표에 도달하다입니다. 그릇에 물이 담겨 있는데,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다 완전히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니다. 구약 계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끝까지 계시가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인물, 사건, 제도, 계명,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내다보는 궁극적 목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모든 것들이 모형입니다. 그 모형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점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 목표점이 이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이 예언한 바를 다 이루셨습니다. 구약이 목표한 바에 다 도달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따라서, 18절은 17절이 말씀을 좀더 심화한 것입니다. 율법은 일점 일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이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결코 폐하여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이란 의미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모두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모두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율법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율법이 모두 성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구약의 기능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권위는 유지됩니다. 구약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써의 권위를 갖습니다. 일점 일획도 권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능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가령 구약의 율법에는 세 부류가 존재합니다. 도덕법, 사회법 제사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덕법은 유지되고, 사회법과 제사법은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도덕법과 제사법 사회법의 기능이 변한 것입니다. 기능이 변했다는 것은 문자와 형식이 변한 것입니다. 문자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형식도 달라집니다. 제사의 형식이 십자가로 바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사 제도를 하지 않습니다. 유월절 어린양을 잡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사 제도의 정신과 목표가 어떻게 유지됩니까? 십자가를 통해 유지되는 것입니다. 제사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된 것입니다. 따라서 18절의 말씀을 잘 이

해해야 합니다. 율법은 결코 폐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성취되었습니다. 율법이 성취됨으로 형식과 문자는 변하였지만 정신과 목표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18절이 온전히 이해되어야 19절이 이해됩니다. 19절은 율법을 어떻게 행하는 문제입니다. 17절과 18절 그리고 19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17, 18절은 율법이라고 하고, 19절은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계명도 사실은 율법인데, 왜 마태는 계명이란 단어로 바꾸었을까요? 17, 18절의 율법은 성취 이전의 율법, 즉 구약의 율법입니다. 19절의 계명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성취된 율법입니다. 마태는 성취된 율법을 계명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성취된 의미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더불어 아무리 구약에 사소한 율법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안됩니다. 나와 상관없고, 지극히 작은 율법도, 무시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입니다. 따라서 20절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의의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20절) 사실 이 말씀이 매우 불편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형편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안타깝게도 바리새인의 의는 그 당시 가장 큰 의입니다.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의 중에서 바리새인보다 더 큰 의가 없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구전 율법을 기록한 미쉬나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했습니다.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의가 그들보다 더 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큰 의를 가지고 있는데 왜 바리새인들은 하늘나라에 못들어 갑니까? 바리새인들의 의는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는 자기 공로입니다. 인간의 의, 공로,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모든 율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큰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과 관계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관계가 있으면 더 이상 행위가 필요 없습니까? 관계가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행위입니다. 그 행위도 바리새인의 행위보다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문자적 의미의 율법만을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성취된 율법적 차원에서 율법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된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 ※.말씀 생각해 보기

- 1) 성취한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봅시다.
- 2) 오늘 본문 17, 18절은 율법이라고 하고, 19절은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계명도 사실은 율법인데, 왜 마태는 율법을 계명이란 단어로 바꾸었는지 설명해 봅시다.

###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작은 말씀이라고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